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00-110 주년 표어
감사의 백년, 소망의 백년
(테살로니가전서 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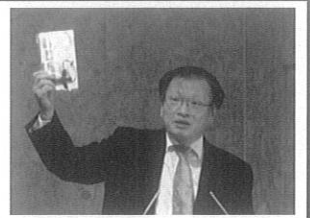


shinachoch2003@daum.net (담당자)

2014년 부활절 메시지 마가복음 16:1-8

어둠 속에서 빛나는 주님의 부활

김성제목사 (부총회장, 나고야교회)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기록한 모든 복음서에서 공통점이 되는 것은 마리아들이 안식일이 끝난 주의 첫날 이른 아침에,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아침에 무덤에 묻힌 주님의 몸에 향료를 바르기 위하여 무덤에 갔더니 이미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펼쳐 보아도 돌아가신 주님이 바로 눈 앞에서 부활하셔서 일어났다는 기사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시간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의 끝은 우리가 오늘날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날 아침이 아니라 토요일의 일몰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마리아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주님의 무덤에 가고 싶어도 밤의 어둠에 가려져 무덤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새기까지 거의 열두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열두 시간 후에 그들이 무덤에 가서 보니, 이미 거기에는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즉 이미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에게 있어서 그 열두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예고하셨습니다.

그 첫째 날은 십자가에 달려 금요일, 즉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 시쯤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후에, 이미 제자들은 도망을 가 버린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 들은 아마 위험하고 곤란한 속삭을 거치면서 시신을 인수하여 바위 굴 무덤에 매장했습니다. 시각은 이미 깊은 밤의 장막이 내려 있었기 때문에 그녀들은 일을 급하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는 주님의 몸에 향료를 바르는 기회를 놓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의 안식일을 말합니다. 삼일 째는 토요일 일몰부터 시작 되었습니다만, 그녀들은 그로부터 열두 시간이 지난 새벽을 기다려서 무덤에 도착한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은 언제 부활하신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답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마리아들이 밤의 어둠에 가려져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하더라도 주님 자신은 이미 어둠 속에서 죽음에 승리하여 부활 하셨다는 진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녀들처럼 앞으로 전진하고 싶어도 앞이 보이지 않고, 어느 길을 선택하면 좋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는 어둠과 같은 사건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인가? 그것이 비록 우리가 아직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어둠 같은 문제에 가로막힐 때에도 주님은 이미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어둠에서 승리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절에 이 진실을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들은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또 하나의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무덤 문의 돌을 굴러 줄까?” (3절). 즉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돌문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식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무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결코 포기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부활절의 두 번째 기쁜 소식은 사람들은 움직일 수 없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무지하고 무능력하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약함 속에서 강하게 계시며,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도우시는 은혜의 힘의 진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2:9).



이 부활절의 기쁜 소식을 복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그 마리아들처럼 큰 슬픔을 만나더라도, 자신의 앞길을 몇 번이나 어둠같은 사건들에 가로 막힐지라도, 또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무겁고 큰 문제가 고민이 될 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쓰임 받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은 반드시 기쁜 소식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마리아들은 놀라움과 떨림으로 그 자리에서 도망갔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부활의 주님은 그녀들을 앞질러 가셔서 기다리셨으며, 그녀들과 두려운 마음으로 방 안에서 두문불출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명의 길로 보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오늘날의 재일대한기독교회도, 다양한 어둠에 가로막히고, 큰 묘비처럼 무거운 문제가 덮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 마리아들처럼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게 쓰임 받기 위한 길을 걸어 갑시다. 주님은 이미 죽음에서 승리하셔서 어둠 속에서 부활의 빛을 받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은혜의 힘으로 도우시고, 우리의 방향을 기쁨을 나누는 길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읍시다.

<서부지방회>

제 25 회 신도수련회



지난 2월 10일 (월) 부터 11일 (화) 양일간 효고현 히메지시에 있는 [뉴상피아 히메지유메사키] 에서 지방회 소속 교회에서 교인들이 모여서 제 25 회 서부지방회 신도 수양회 (교육부 주최) 가 개최되었다.

이번 신도수련회는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과 궁극적인 관심> 이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강사인 권혁승목사 (서울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장) 는 참가자들에게 은혜로운 격려와 강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먼저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와 함께 걷는 하나님” (창세기 3:8-10) 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어를 통하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산책하시는 분] 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권면하였다.

이어서 두 번째 강의에서는 “온전하게 해 주시는 살롬의 하나님” (민수기 6:22-26) 이라는 제목으로 [살롬에 포함 된 단어의 의미는 세상이 주시는 못하는 기쁨이 있다] 면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강조하였다.

개회예배는 나가에요 - 이찌목사 (서부지방회회장) 가 “유혹 속에서” (마태복음 4:1-11)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으며, 새벽기도회는 양영우목사가 “해가 질 때까지” (에베소서 4:6-27), 폐회예배는 한택주목사가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1:1-11) 라는 제목으로 각각 설교하고 폐회하였다.

참가자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1박 2일이라는 기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수양회가 되었다. 금번 스런회 참가 인원은 성인 52명, 어린이 8명이었는데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

(보고 : 한택주, 교육부서기)

<관서지방회>

두 교회에서 신년 시경회 개최

지난 1월 11일 (土) 부터 13일 (月) 까지 関西地方会 新年査経회가 伝道部主催로 大阪地域은 大阪教会에서 京都地域은 京都教会에서 각각開催되었다.

강사는 康文鎬牧師 (서울 갈보리교회) 였는데, 現在 韓国 幕屋 (성막) 研究院 院長이며, WEC 宣教会 理事이다. 특히, 幕屋에 關連된 書籍을 90여권 以上 著述하였고, 幕屋 세미나를 25년에 걸쳐 250회 以上 引導하였으며, 필리핀에 237개의 教会를 建築할 정도로 宣敎에도 情熱的이다.

첫 集會는 11日 (토) 午後 7時부터 大阪教会에서 宋南鉉牧師의 司會로 開催되었으며 大阪教会 聖歌隊가 讚揚奉仕하였다. 두 번째는 12日 (주일) 午後 3時부터 大阪教会에서 趙永哲牧師의 司會로, 関西地方 聖歌隊連合會가 讚揚하였다.



또한 강목사는 13日 (月) 午後 2時부터 京都教会에서는 関西地方会 教役者會 主催 (金鍾權牧師 司會) 로 教役者·師母세미나를 인도하였다. 教役者와 師母 約 30여명이 參席하여 幕屋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照明하는 時間을 가졌다.

마지막 集會는 12日 (月) 午後 6時부터 京都教会에서 李教錫牧師의 司會로 開催되었다. 京都教会 聖歌隊의 讚揚과 関西地方会 教役者一同의 特別讚美가 있었다.

今番 新年 査経會는 関西地方会 各 教会가 新年에도 말씀으로 큰 恩惠를 받고, 한 해를 忠實하게 살고자 다짐하며, 한 마음으로 祈禱하는 恩惠의 時間이었다.

新年査経會를 爲해서 大阪教会와 京都教会가 場所를 提供하고 礼拝를 準備했으며, 여러 牧會者들과 信徒들이 祈禱와 讚揚, 伴奏, 通訳, 案内 등으로 奉仕했다. 앞으로도 関西地方会 各 教会가 連合하여 말씀으로 恩惠를 받고 祈禱와 伝道에 專念하기를 所望해 본다. (報告 : 宋南鉉牧師)

在日コリアン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在日本韓国YMCAは皆様と共に歩みます。



東京◆ホテル：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フロントは日・韓・英語に対応、24時間営業。10名様～200名様のお会議及び宿泊研修(50名)も可能。
・スペースYホール：200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対応。
・韓国文化教室【チャング・カヤグム・舞踊】・韓国語講座・各種子どもクラス
・YMCA東京日本語学校【3ヶ月～2年、短期研修】

関西◆にほんご教室《新規開講・募集中》韓国民俗芸術科【舞踊・チャンゴ】

在日本韓国YMCA <http://www.ymcajapan.org/ayc/jp/>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詳しくは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東京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樂町 2-5-5 ☎ 03-3233-0611

関西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537-0025

大阪府東成区中道 3-14-15 ☎ 06-6981-0782

税込	平日	休・休前日
シングル	¥6,500	¥6,000
ダブル	¥10,500	¥9,700
トリプル	¥13,500	¥12,500
朝食・コーヒー¥200(宿泊者価格)		

<제 10 회 WCC 부산총회> - 3-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의 평화로 이끄소서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듯한 경험을 본 회의 (Business Plenary) 에서 할 수 있었다. 코스트코 한 점포만큼이나 넓은 큰 회장에 1000 석 쯤의 좌석이 배치되었고, 정면 무대에는 WCC 임원들을 위한 자리가 있었다. 정면 좌우에는 큰 스크린들이 설치되고 발언자의 모습이나 소속, 이름 또 현재 토의 중인 문서내용 등이 비추어지게 되어 있었다.

이곳이 세계 345 가맹 교단에서 파견된 700 명 이상의 총대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의사를 진행하는 장소다. 나중에 어떤 보고회에서 WCC 중앙위원이신 니시하라 켄타 (西原謙太) 교수님이 WCC 를 “공회의적 측면을 갖는다” 고 표현하셨는데 정말 그에 적합한 박력이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칼케돈 등 고대에 시작되어 교회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온 그 공회의들의 현대판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그 만큼 WCC 총회는 세계 기독교를 망라하고 있고 또 대표하고 있다. 그 의장에서 “Korean Christian Church in Japan” 이라는 팻말이 올려진 좌석을 발견했을 때는 마음이 떨렸다. 비록 총 신도 수 5000 명도 안되는 작은 교단이지만, 세계 교회가 한 곳에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여, 기독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공동작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흥분하면서, 재일대한국도교회가 WCC 에 가맹하는 길을 열어주신 선배님들에게 진정으로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본 회의는 “현대의 공회의” 답게 정말 엄숙하고 “어른스러운” 매너에 따라 진행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재일대한국도교회는 일본 성공회 옆자리였기, 나는 본 회의 동안 니시하라교수님의 해설을 들으면서 앉아 있을 수 있었다.

모든 의결은 “컨센서스 방식” 이라는 독특한 방법을 따러서 행해진다. 각 교단의 총대들에게는 미리 자기 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오렌지 카드” 와 “블루카드” 가 배포되었고, 찬반 의사를 밝힐 때에는 찬성의 경우에 주황색, 반대의 경우에는 파란색 카드를 든다. 그 수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되는데, 블루 카드를 든 소수자들에게는 발언권이 주어지고 그 발언들이 기록된다. 그리고 나서 원칙적으로는 블루 카드가 거의 안 보이게 될 때까지 신중하게 소수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발언을 하고 싶은 총대들은 회의장 여러 곳에 설치된 마이크 뒤에 줄을 서서 조용히 기다린다. 그리고 자기 차례가 오면 먼저 어느 교단을 대표하는 누구라고 밝히고서 “Thank you, moderator” 라면서 발언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이 매너인 것 같았다. 발언 시간은 1 분 반이고 그 시간이 지나면 “띵” 하고 종이 울린다.

아무리 멋진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을 초과하면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겨우 1 분 반이라는 짧은 시간을 얼마나 유효하게 사용하느냐라는 테크닉이 발언자들에게 요구된다. 긴 설명이나 맥락에서 떨어진 자기주장은 금물이며, 간결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강한 언설 (言說) 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발언자들이 이 기술에 능한 듯 했다.

그리고 그 발언을 지원하고 싶거나 반대의 뜻을 표명하고 싶은 경우, 총대들은 자기 카드를 든다. 가끔씩 발언자의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박수가 나와서 회의장 분위기를 흥으려뜨리기도 했지만, 그 때마다 의장은 “박수는 치지 말고 카드를 보이라” 며 엄격하게 주의를 주고 있었다.

의사운영의 “어른스러움” 과 빈틈없음에 나는 “과연!” 이라고 혀를 내두르면서 앞서 개최 된 우리 정기총회를 뒤돌아 보았다. 불규칙 발언이나 맥락에서 벗어난 언설과 같은 발언 등, 우리의 의사운영은 기독교회의 의회로서 본래 갖추어야 할 모습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차세대를 짊어질 인재들이 이런 자리에 나가서 더욱 많이 보고 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KCCJ 는 보다 “어른스러운” 세계 수준의 교단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저에게 주어진 멋진 기회에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보고 : 허백기 목사 츠쿠바동경교회 / 총회사무국 간사)

<중부지방회>

1 일 연수회 개최

지난 2 월 21 일 (금) 오전 1 시 30 분부터 나고야교회에서는 중부지방회 여성연합회와 청년부 주최로 1 일 연수회가 개최되었다.

제 1 부는 고토 - 키요시 목사 (後藤喜良, 동맹복음 오오가키 그리스도교회, 동해 성경신학 학원, 교무주임) 가 [나의 성경 미독작법 (味読作法)] 이라는 주제로 성경의 세계에 빠져들어가는 읽기 등을 자료를 바탕으로 유머를 섞어가면서 알기 쉬운 뿐만 아니라 힘찬 강연을 하였다.

그리고 제 2 부에서는 황선화집사 (순복음 나고야교회) 가 한국 무용을 지도하였다. 숨을 들이 마시고, 내쉬고, 팔과 다리를 이용하여 아리랑 노래에 맞추어 전신을 사용하여 땀을 흘리면서도 즐겁게 노래와 춤을 배울 수 있는 충실한 1 일 수련회가 되었다.

(보고 : 김숙자, 청년부장)

재일 한국인 귀화인 재혼 희망자 전문

芦屋ルツ결혼상담소

마음과 기도를 다하여!
한남이서부터 결혼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 최정숙권사 (코베동부교회 권사)

〒 659-0012 兵庫県芦屋市朝日ヶ丘町 10-35-504

TEL : 0797-34-6814 / FAX:0797-38-6868

URLwww.ar-k.jp / e-mail : gen@rehoboth.jp



豊かな味、豊かな心。



妻家房

SAIKABO

代表取締役 吳永錫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 長老)

四谷本店 : 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

< 3.11 동일본대지진국제회의 > 후쿠시마로부터의 질문



< 사진 : 일본기독교단 제공 >

일본기독교단은 지난 3월 11일~14일까지 센다이에 있는 동북학원대학에서 원자력 안전신화에 맞서 “후쿠시마로부터의 질문”이라는 주제로 동일본 대지진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세계 각국과 일본에서 약 200여명이 참가하였다.

동일본대지진 3주년 예배 및 기념강연은 공개로 열렸는데 약 550여명이 모였다. 강상중 교수 (성학원대학학장)는 [희생의 시스템을 넘어서 - 미나마타 · 히로시마 · 후쿠시마 -]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지금 이 시대의 소수자인 기독교의 역할은 방향을 알려 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기초강연에서 시마조노스스무교수 (島蘭進, 상지대)는 [원자력 발전의 비논리성과 종교로부터의 목소리 - 후쿠시마 원전 재해 후의 고난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급속한 경제 발전의 도상에서 “효율”이라는 안이한 기준에 휩쓸려 길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콘도카쓰히코 목사 (近藤勝彦, 전동경신대학학장)는 “에너지 정책전환의 카이로스 - 기독교 신학의 관점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생각한다 - “라는 제목으로 신학의 관점에서 강연했다. 현지로부터의 보고는 아이즈 방사능 정보센터와 아시아학원, 해외 교회 (독일, 대만, 한국, 스위스, 미국, 독일, 캐나다)가 하였으며, 해산을 한 후에는 해외에서 온 참가자들이 피해지역으로 가서 현장을 학습하고 귀국하였다.

우리 재일대한기독교교회에서는 3명이 참석하였다. 명상 시간에는 김병호총간사가 기도를 하였으며, 이명신목사 (야마가타교회)는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신명기 30:19)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이재민 지원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만났던 이주 여성들의 에피소드 (허백기목사 작성)가 낭독되었다.

(보고 : 이명신, 야마가타교회)

< 제 9 회 해외한인교회 > 교육과 목회협의회 개최

제 9 회 해외 한인교회 < 교육과 목회 협의회 >가 미국 애틀랜타 연합 장로교회에서 지난 2월 25일 (화)에서 27일 (목)까지 < 디아스포라여, 자세대로 향하는 비전을 가져라 >는 주제로 세계 9교단에서 약 60여명이 모여서 개최되었다.

먼저, 콜롬비아 신학대학 예배학교수의 인도로 개회예배로부터 마지막의 10개의 선언문을 한국어, 영어로 읽고 일동이 박수로 채택되는 시간까지 모든 프로그램이 의미 있는 유익한 내용이었다.

KCCJ에서는 9명이 참가하였으며, 이번 회장인 정연원목사가 개회예배와 새벽기도회를 담당했다. 또한 분과토의에서는 김성제목사가 [하나님의 기류자로서의 코리아 디아스포라 교회]라는 제목으로 유익한 강의를 하였으며, 다음 회의 총무로 선출된 김병호총간사 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교육위원장으로 참여한 전성삼목사는 [해가 뜨는 이 일년에 파견되어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KCCJ의 사명의 크기를 알 수 있었다]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한민족 디아스포라는 세계 175개국에 7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에서의 체험,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야말로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KCCJ야말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보고 : 전성삼, 교육위원장)



< 동경성민교회 (구, 동경원전교회) 주소변경 >

※ 4월 29일부터 < 동경성민교회 >로 명칭변경 되었습니다.

〒130-0022 東京都墨田区江東橋 4-30-15
三成ビル 1F 전화 : 03-6806-5854
< 흥영광목사 전화번호 > 080-9734-9346

2014년 교역자 장로연수회

- 일시 : 2014년 7월 13일 (주일)-15일 (화)
- 장소 : 동지사 비와호 리트리트센터
〒520-0501 滋賀大津市北小松 179 / TEL : 077-596-0008
- 회비 : 30,000엔 예정 (교통비 포함 / 지원은 추후 통보)
- 협력 : 여성회, 청년회, 신도위원회, 역사편찬위원회 등
- 주최 : 교육위원회